

2022년 국가직 9급 한국사 정답해설

[옥저] 신영식 한국사 1권 60쪽 / 날씬한국사 9쪽

1.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 ④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국가는 옥저이다.

- ① 옥저에는 어린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신부 매매혼 풍습이 있었다.
- ②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의 군장 세력이 있었고, 이들 가(加)는 저마다 별도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삼한은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제정 분리 사회였으며, 천군이 소도라는 영역을 지배하였다. ④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면서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신영식 한국사 2권 247-248쪽 / 날씬한국사 134쪽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③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 ④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정답 : ③

- ③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이 조성되었다. 백제에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조성된 곳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다.
- 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②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조탑의 구조를 석재로 변형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탑으로, 백제 멸망 후 1층 탑신 사방에 소정방의 대당평백제국비명(평제문)이 새겨져 있다. ④ 무령왕릉에서는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되었다.

[조선 시대 관청] 신영식 한국사 2권 21-22쪽 / 날씬한국사 78쪽

3.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간원 - 교지를 작성하였다.
- ② 한성부 -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 ③ 춘추관 -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④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정답 : ④

④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을 맡아보았다. ①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임명을 논박하고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교지 작성을 담당한 기관은 예문관이다. ② 한성부는 정2품 한성 판윤(한성 부윤)을 중심으로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수도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시정기를 편찬한 기관은 춘추관이다. ③ 춘추관은 실록과 역사서의 편찬 및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교 문서를 작성한 기관은 승문원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신영식 한국사 3권 164-165쪽 / 날씬한국사 170쪽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①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② 비밀 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 의군부를 만들었다.
- ③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④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을 위해 1919년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② 독립 의군부는 유생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1912년에 조직한 단체이다. ③ 총대장 이인영과 허위 등을 비롯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단체는 13도 창의군이다. ④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이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초빙하여 1904년에 창간되었다.

[신라 승려] 신영식 한국사 1권 159-160쪽 / 날씬한국사 30-31쪽

5. 다음 (가), (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나)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 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①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 ②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 ③ (나)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④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시하였다.

정답 : ②

(가)는 의상, (나)는 자장이다.

②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었으며, 부석사·낙산사 등의 화엄종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폈다.

① 원효는 아미타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고,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③ 혜초는 당, 인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 서역까지 다녀온 뒤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④ 의천은 고려 시대의 승려로 교관검수와 내외검전을 제창하여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발해 무왕] 신영식 한국사 1권 109쪽 / 날씬한국사 19쪽

6.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가]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 『신당서』 -

- 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 ②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 ③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 ④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움을 청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가)는 발해 무왕이다.

③ 발해는 흑수말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립하였고, 이에 무왕은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산둥 반도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① 발해는 문왕 때인 756년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고 785년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겼다. 이후 성왕 때인 794년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재천도하였다. ② 9세기 선왕 대 요동과

만주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④ 발해 고왕(대조영)은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震)'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 주요 국왕] 신영식 한국사 2권 109쪽 / 날씬한국사 99쪽

7. (가)~(라)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어 (가) 대에 완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 대에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다) 대에 『대전통편』을, 그리고 (라) 대에는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① (가) -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 ② (나) - 서원을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였다.
- ③ (다) -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 ④ (라) -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정답 : ④

제시된 (가)는 성종, (나)는 영조, (다)는 정조, (라)는 고종이다.

④ 철종 대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삼정이정절목을 반포하였다(1862).

① 성종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켜 언로를 넓혔으며, 이를 위해 세조 대에 폐지된 집현전을 대체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② 영조는 탕평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당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었던 산림(山林)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와 함께 영조는 봉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③ 정조는 수원 화산(팔달산) 아래로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현릉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으로 하여금 화성을 세우도록 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묘사화] 신영식 한국사 2권 264쪽 / 날씬한국사 83, 84쪽

8.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람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람은 큰 피해를 입었다.

- ① 갑자사화
- ② 기묘사화
- ③ 무오사화
- ④ 을사사화

정답 : ②

② 조광조가 반정 공신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신의 위훈을 삭제하자,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화는 기묘사화이다(중종 14, 1519).

① 갑자사화(1504)는 연산군이 능상(陵上)의 풍조를 일소한다는 명분하에 조정 신료들을 도륙했던 사건을 말한다. ③ 김종직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항우와 의제에 빗대어 「조의제문」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을 김일손이 사초에 실으면서 이후 무오사화(1498)의 원인이 되었다. ④ 명종 때에는 왕실의 외척인 대운과 소운의 권력 다툼이 계기가 되어 대운 세력과 인종을 지지한 사림 세력이 화를 입은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1545).

[삼국사기와 발해고] 신영식 한국사 1권 298쪽, 2권 222쪽 / 날씬한국사 66쪽, 126쪽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분은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고구려·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①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 ② (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나)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④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가)는 『삼국사기』, (나)는 『발해고』이다.

③ 유득공의 『발해고』는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으로 확대시키면서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데 힘썼다.

①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 집권기인 1193년에 편찬된 역사서로서 민간 전승으로 내려온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이다. ②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한 것은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④ 『발해고』는 유득공이 한국, 중국, 일본의 사서를 참고하여 발해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 ① 조선 총독부는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1912~1918).
- ②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과정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통하여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다. ③ 일제는 1941년 국민학교령 제정에 따라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④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1938)을 제정하여 한국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백범 김구] 신영식 한국사 3권 259쪽 / 날씬한국사 190쪽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③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을 역임한 백범 김구이다.

- ④ 1945년 12월 한국에 대한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이 전해지자 김구 등의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자,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파 인사들 사이에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조직되었으며,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제 패망 이후 치안 유지와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조직되었다. ③ 대조선 국민군단은 무장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1914년 미주 지역에서 박용만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제헌 국회] 신영식 한국사 3권 268쪽 / 날씬한국사 192쪽

13. 제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③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답 : ①

1948년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1948. 7).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 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이 제정·공포하였다. 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이 공산당의 주장이라고 국회를 협박하고, 반공 구국 쟁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정부는 이 대회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친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1948. 10. 23).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은 박정희 정권인 1965년의 사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 ③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의 사실이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유신 헌법에 의해 조직된 헌법 기관이다.

[흥선 대원군] 신영식 한국사 3권 14쪽 / 날씬한국사 135쪽

1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 ① 미국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②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 ③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④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섭정으로 집권한 흥선 대원군(1863~1873 집권)이다.

② 1871년 신미양요 이후 흥선 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① 고종의 친정 때인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이듬해 주한공사로 푸트가 조선에 오자 조선은 이에 대한 답례로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하여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6~9) ③ 숙종 때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모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④ 개화 정책 전담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은 고종의 친정 때인 1880년 12월에 설치되었다.

[고구려 장수왕] 신영식 한국사 1권 76쪽 / 날씬한국사 12쪽

15.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써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 『삼국사기』 -

- ①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 ②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 ③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었다.
- ④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 대의 간첩인 도림의 건의에 따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단행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밑줄 친 '이 왕'은 백제 한성을 점령한 고구려 장수왕이다.

- ①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 ② 진대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고국천왕, ③ 낙랑군과 대방군 등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낸 것은 미천왕, ④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친 왕은 광개토 대왕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신영식 한국사 1권 317쪽 / 날씬한국사 71쪽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에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 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 ① 서울 흥인지문
- ② 안동 봉정사 극락전
- ③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정답 : ②

②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① 한양 도성의 사대문 중의 하나인 흥인지문은 조선 태조 때 창건되었다. ③ 신라 의상이 창건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에 팔작지붕 건물이다. ④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독립 협회] 신영식 한국사 3권 56쪽 / 날씬한국사 145쪽

1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을/를 만들었다. (가)은/는 고종에게 자주 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

- ① 「교육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②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 ③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④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가)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

② 1896년 결성된 독립 협회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영은문 자리에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하여 독립문을 세웠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는 등 독립 기념물을 건립하여 국민의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다.

① 「교육입국 조서」는 제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 2월에 발표되었다. ③ 제2차 갑오개혁 당시 고종은 왕세자와 신하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개혁 사업의 구상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1894. 12. 12). ④ 국채를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대구 광문사의 부사장이었던 서상돈이 발의하였고, 이후 김광제와 서상돈 등이 단연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이러한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채 보상 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에서는 국채 보상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원 간섭기] 신영식 한국사 1권 258쪽 / 날씬한국사 55쪽

18. (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권당이 만들어졌다.
- ②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③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④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정답 : ③

김준 등의 정변으로 인한 무신 정권의 몰락은 1258년이고, 공민왕 즉위는 1351년의 사실이다.

③ 고려 공민왕 때인 1356년 유인우가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① 만권당은 충선왕이 1314년 원나라 연경에 건립한 학문 연구소로 1320년에 폐지되었다. ② 1274년 여·몽 연합군이 1차 일본 원정에 실패한 이후 원은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1280) 2차 일본 원정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④ 『제왕운기』는 원 간섭기인 충렬왕 13년 (1287)에 이승휴가 편찬한 역사서이다.

[고려 경제] 신영식 한국사 1권 271-274쪽 / 날씬한국사 57쪽

19.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의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이양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도 소개되었다.

- ①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 ②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③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 ④ '소'라는 행정 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나라'는 고려이다.

②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마련된 대동법 시행 이후의 사실이다. 고려 시대에서는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다.

① 고려 시대에는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호부와 삼사를 두었다. ③ 고려는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④ 고려 시대에는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이 있었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신영식 한국사 기본서 3권 19쪽 / 날씬한국사 138쪽

20.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 | | |
|------|-----|------|
| | (가) | |
| 신미양요 | | 갑오개혁 |

- ① 을사늑약 체결
- ② 정미의병 발생
- ③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연표에서 신미양요의 발생은 1871년, 갑오개혁은 1894년의 사실이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은 1882년 4월의 사실이다.

① 을사늑약의 체결은 1905년 11월, ② 정미의병의 발생은 1907년, ③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의 발생은 1868년의 사실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